

# 열린신문

##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 말씀술루선

##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을 문(門)을 지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라고 단언하십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문을 지나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으리으리하고 멋있어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 뒤에 어떤 길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택해서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스스로 선택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만 일어나면, 이런저런 일만 해결되면, 이러이러한 자리에 올라가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생명과는 관계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길까에 모든 축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맞고 그 기운이 깨고 나면 허무에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는 있으나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속사람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어느 전도지에 있던 문구가 기억납니다.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길은 필연적으로 넓은 길이요,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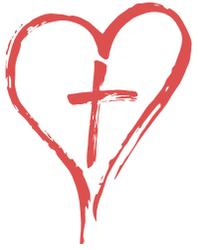
톨스토이는 인생을 대합실에 비유했습니다. 그 대합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길로 이르는 멸망의 열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을 향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 <전도설교시리즈 II> 중에서

(본 시리즈는 어리석은 부자/은혜받은 자의 마땅한 소위/침묵할 수 없는 소식/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그가 찔림은/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서/구원받은 강도/대속하신 그리스도/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9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 복음을 소유한 교회



김남준 담임목사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행 3:6-10)

### 본문배경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사도들은 한 푼의 돈을 구걸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였을까요?

###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영혼 사랑에 불붙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가 자신들의 물질을 헌신하였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들이 돈을 그에게 주지 않은 것은 돈이 그에게 필요 없거나 나쁜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에게는 소외, 가난, 멸시, 깨어진 인간관계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문제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선언과 함께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자기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어떤 일에 몰입하거나 쾌락에 빠집니다. 또는 안일한 즐거움을 의지하여 힘든 현실을 잊어버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걸어가고 있는 길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듣고 아는 복음이라면, 답대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라고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현재적으로 체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돈 한 푼 던져주는 것으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 우리를 위해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Good News)이 될까요? 그 이유는 ‘위해서’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를 대신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둘째, 우리를 대표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형벌 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셋째,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형벌은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용서는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요 3:16).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러한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

루살렘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속에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걷지 못해 구걸하던 자  
진정 필요한 것은 복음,  
새 삶을 살게 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

우리를 위한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해야



우리도 흠어진 양 떼들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없어서 핍절한 사람들을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들려주어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씻어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 순전한 마음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고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복음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서로 같은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능력을 보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약하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교회가 기도로 헌신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 맺는말

교회의 영광은 높은 건물이나 많은 교인, 정교한 운영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럼으로써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

### ☎ 담임목사 동정

- 6.1. 총회 교회개혁전도성장세미나 강의
- 6.4. 구역장 강의
- 6.11. 구역장 강의
- 6.16.-17. 당회 수련회
- 6.18. 세계축환영회
- 6.19.-21. 교역자 부부 수련회
- 6.25. 정기제직회
- 6.26. 한국 조난단 에드워드 컨퍼런스 기조강연

### 📻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 🌐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교육지원센터

# 교회학교교육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이지연 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도사  
jyjeon9309@naver.com

### 교육지원센터의 시작

열린교회에는 '등불학교'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0년에 부모님들이 구역모임을 하는 동안 교회에 머물고 있던 어린이들을 모아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등불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등불학교는 6살 유치부부터 소년부를 대상으로 교리와 함께, 과학, 예술, 법 등의 분야에 종사 중인 전문가들의 주제특강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육했습니다. 연 2회 진행되는 등불학교는 기수가 더해질수록 학생들이 더욱 기대하고 큰 유익을 얻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아부와 유아부에 있는 아동들의 학부모들은 “어서 유치부에 등반해서 등불학교에 참여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며 영아부와 유아부를 대상으로도 등불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요청은 더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2022년 3월, 영아부와 유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빛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빛교실은 영·유아부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속 인물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 시간대에 진행되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마음과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 백향목공동체

# 성전의 기둥으로, 교회의 인재로 쓰임 받기를



권경철 지역전도담당목사  
cyberkcc@gmail.com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백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사실 2020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이 평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일예배는 약 700번이고, 80세는 단지 180번가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100번이 넘는 대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에 교회의 기둥이었던 성도님들 상당수가 이제 70세를 막 앞두고 있거나 넘긴 분들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예배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이전 어르신 성도님들의 모임이었던 '소망부'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중단되어 있었고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전에 소망부에 소속되었던 분들 외에도 많은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넘기고 사회와 교회 직분에서 은퇴하신 이 시점에, 이전과 같은 형식의 부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부서와

영아부부터 소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청소년에게도 같은 목적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대학교'가 22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등대학교는 공부, 성, 연애, 진화론 등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전문 강사들의 강의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실제적으로 훈련합니다.

이렇게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가진 교육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학교는 부서목양과 별개로, 이 교육들이 일관성 있는 교육목표 아래서 진행되도록 기획하고 통제할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 가운데, 2023년도에 교육지원센터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지원센터의 임무

교육지원센터는 첫째, 세빛교실, 등불학교, 등대학교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본 센터에는 미취학부(영아·유아·유치), 취학부(유년·초등·소년), 청소년부(중등·고등)를 목양하는 교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함께 모여 세빛교실, 등불학교, 등대학교가 각자 가지고 있는 교육목표를 잃지 않고 기획 및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합니다.

둘째, 교사교육을 진행합니다. 부장·부감간담회, 교사수련회 등을 통해 교사들은 섬김의 열정을 품고, 차세대 아이들을 더욱 잘 양육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부터 전 부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1월에 교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교사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필요한 커리큘럼을 기획합니다.

셋째, 학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열린교회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학부모세미나가 있고, 세빛교실에서 학부모교육이, 등불학교에서는 학부모설명회, 학부모모임 등이 진행됩니다. 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소스를 전하고자 연구하고 기획, 진행합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 교회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해 나갈 것입니다. 본 센터가 목양적 돌봄과 더불어, 교회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교사로서 희망하는 훈련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에도 달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 오후 2시 소망부 모임만으로 70세 이상 모든 성도님을 포괄한다는 것은, 모임 시간으로 보나 장소로 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과 장소를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금요일에 본관 1층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1학기는 봄에, 2학기는 가을에 하고 중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교회에 들여다 놓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주객이 전도된 채 흘러가는 부서가 되지 않기 위해, 모였을 때는 먼저 오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뜨거운 찬양과 말씀, 기도회를 하고, 오후가 되어서 식사와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부서인 만큼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향목공동체'입니다. 백향목은 성경에도 나오듯이 레바논의 특산품으로서, 고산지대에서 서릿발을 맞으면서 천천히 그러나 꽃꽂하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수명도 매우 깁니다. 그래서 목재로서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린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묘목이라면, 70세 이상 되는 성도님들은 백향목과 같은 거목으로서 성전의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인재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제 백향목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많은 어르신이 이전보다 더 많은 경건의 훈련을 쌓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시도록 도와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이신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많으며 꽃꽂한 백향목처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님의 기도와 봉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고 가시는 교통편 제공과 주차 및 식사와 제반 안내 업무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예배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한 분도 없도록, 내 부모님을 모시듯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랑부장애인주일 후기

# 우리는 한 몸



유영은 사랑부교사  
728011@naver.com



2023년 장애인주일의 주제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주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통해 정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듯이, 한 몸 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껴주는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사랑부는 이와 같은 주제 말씀에 따라 2023년도 사랑부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부 지체들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사랑부 예배에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일마다 드러지는 사랑부 예배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부 예배에 함께한다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랑부의 진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과 9일 주일에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자

신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일 당일에는 '기도후원자 모집'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도후원자 부스는 사랑부 지체 한명 한명과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께 알리고 연간 기도로 섬겨 주실 후원자를 모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정리하는 섬김을 하였습니다. 섬김을 감당하며 마음에 많은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얼른 성장하여 부모님께 걱정을 그만 끼쳐드리고 싶습니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걸음으로 보면 다 큰 성인이지만, 여전히 아이와 같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도 수많은 고민과 다양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로 함께해 주실 기도후원자들을 부스에 모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역대 가장 많은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부 사역에 동참해 주신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사랑의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이 직접 음료를 준비하여 성도들께 대접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반복적인 일도 깔끔하게 잘 해냅니다.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배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합니다. 혹시라도 2층 브리지에서 만난 사랑부 친구들을 교회에서 다시 만난다면, 성도님들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소통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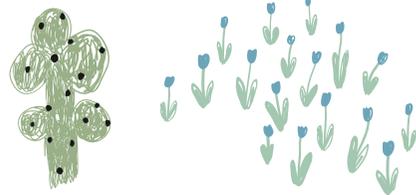


매년 준비했던 장애인주일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주제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사랑부 교사와 지체들이 함께 준비하며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전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지체'라는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손끝에 작은 가지 하나만 박혀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저도 한 몸 된 지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한 몸 된 사랑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

영아부예비학부모설명회 후기

# 우리아이 첫 예배자리 영아부



이세희 장년6교구  
seihee413@gmail.com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100일이 지나 교회에 나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좋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모실에서 여전히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저는 3층 예배당에서, 친정엄마는 둘째 아이와 자모실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질 무렵부터 저는 다시 아이가 얼른 돌이 지나 영아부 예배에 갈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이의 예배보다 저와 친정엄마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를 빨리 영아부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5살, 2살 두 아이를 양육하며 체력도 영혼의 힘도 많이 고갈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돌이 지나고 첫 주일, 영아부 예배실에 가서 아이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소개하고 저의 첫 마디는 "저 이제 예배드리러 가도 되나요?"였고, 당황하신 부장 선생님께서 "아니요 어머니, 영아부에서는 아이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4주 정도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예배 후에 바로 영아부 예비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첫아이 때도 비록 코로나 중이었지만 현장 예배가 가능

한 때부터 아이를 영아부에 보냈었기에 예배의 순서, 형식,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은, 마냥 어려 보이는 이 아이가 예배 가운데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명회 초반 김민정 전도사님께서 영아부 예배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에 비유해 주셨을 때 '맞다, 이 예배는 아이가 스스로 처음 드리는 예배지.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지. 아직 말은 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보여주는 찬양과 울동이 아이의 눈동자를 통해 머리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지!'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엄마 껌딱지에 겁도 많은 첫아가가 처음 영아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다른 무엇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제는 유아부에서도 형님이 되어 말씀암송도 기도도 찬양도 스스로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었는데 감사는커녕 지금의 삶에 지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예배'를 처음 배우고 세워가는 둘째 아이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도 아직 다니지 않아서 분리와 적응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성수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아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영아부에서 매주 보내주시는 영아부편지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가정예배와 말씀암송을 열심히 하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하며, 토요일부터 준비하여 주일에는 교회에 일찍 와서 영아부 선생님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며, 찬양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처럼 아이의 삶을 내가 항상 지켜주지 못해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첫 분리 경험을,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눈물로 아이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영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

태아부예비맘스쿨 후기

#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삭이와 함께하는 예비맘스쿨



윤여정 장년2교구  
yojeong.yoon@gmail.com

열린교회에 다니면서 매번 저를 울렸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한 예비 엄마들을 위해 열렸던 태아부의 예비맘스쿨 광고였지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며 울었던 이유는 너무 간절하게 가고 싶었지만, '임산부'라는 자격을 너무 오랜 기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른다섯에 결혼해서 8년의 난임 기간을 보냈습니다. 자연 임신을 위한 모든 노력과 더불어 세 번의 인공수정, 열두 번의 시험관 시술 그리고 세 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고 서른일곱 살이 되어서는 조기 폐경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열하며 산부인과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심지어 깨끗한 청정국에서 살면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이민을 갔다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국 마흔의 나이가 넘자 저의 몸은 의학적으로 폐경이 되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며 입양 등의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그렇게 긴 시간 노력하던 임신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부부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슬픔을 잊으려 애쓰며 무자녀 부부로 살 것을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선언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경 증상의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임신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희 부부는 큰 기대

없이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저의 친정엄마께서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세기 21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며, 저에게 그 말씀을 동일한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저의 몸을 보면 가능성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매일 감사의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작년 10월,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을 보게 되었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가의 심장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눈물을 거두시고 창세기 말씀처럼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를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신은 너무 어려웠지만, 주께서 임신 기간은 더욱 큰 은혜로 지켜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태아부 예비맘스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첫 시간 찬양부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아가 만날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너무나도 간절했던 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번 예비맘스쿨을 통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

리의 정체성과 더불어 아이의 정체성의 깨달음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족으로서, 또한 주체성 있는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 험한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나눔을 하던 시간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학교> 책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이 '신성한 위탁'으로 받은 생명을 겸손히 섬길 대상(가장 친밀한 타인)으로 여겨, 양육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을 실천하고, 거룩해지는 모습의 본이 되어주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출산 전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알게 되어 또한 기쁩니다.

꽃꽂이와 좋은 강의들, 말씀과 교제, 맛있는 간식 등으로 이번 기수를 섬겨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6월에 있을 건강한 출산과 아기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양육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열린교회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 교회 소식

### 장년교구모임

4월 30일(주일)에 장년교구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교구의 목회자는 성경 속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아웃리치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독려했고 파송될 지역교회에서 보내온 목회자 인사 영상 시청과 현지 교회와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교직원 교육

열린교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본관 1층과 3층 로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에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시청과 함께 연습용 더미를 통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농어촌아웃리치 특강

농어촌 아웃리치를 위한 특강 및 모임이 5월 14일에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전도 사례와 실제적인 복음법을 제시하고 현지 교회와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설교 정리본 출간

2022년도 설교 정리본 <은혜의 강가에서>(열린교회출판부)가 출간되었습니다. 열린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칼빈·트리니티신학교 섬김

담임목사님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의 미국 출장 기간에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칼빈신학교 학생과 트리니티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 성령강림주일 헌금

5월 28일에 이어 6월 4일(주일)에 성령강림주일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성령강림주일 헌금으로 해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담임목사님의 저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9-997386 열린교회경상)

## 6월 교회사역 일정

- 16일(금)-17일(토) 당회수련회
- 18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 19일(월)-21일(수) 상반기 교역자 부부 수련회
- 24일(토)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교사·학부모기도회
- 25일(주일) 정기제직회/  
스위니(Douglas A. Sweeney) 교수 특강
- 26일(월)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
- 26일(월)-7월 20일(목) CRTS 집중수업

## 새가족

### ▶▶ 장년

- 김시운(80)
- 권민숙(46)
- 최형근(89)
- 조상은(91)
- 박삼순(42)
- 이소현(90)
- 장영준(68)
- 박선애(69)
- 조형진(82)

### ▶▶ 청년

- 김동휘(00)
- 이하린(03)
- 이용훈(92)
- 전찬우(98)
- 김 린(00)
- 김 신(98)

##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시화전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거스틴의 8가지 문장을 통해 보여주었던 김남준 목사님의 시와 고통 속에 고립된 이들에게 신앙의 물감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이병욱 원장님의 그림이 함께합니다.

6월 1일~29일 / 르한스갤러리

경주자(교역자칼럼)2

#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양승희 장년4교구전도사  
yang72494@gmail.com

스물여섯 살 봄! 세상은 온통 푸르렀고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벚꽃이 피고 바람에 꽃잎이 날릴 때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다. '저 꽃잎처럼 나도 바람에 날아가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면...' 그러나 그 이후가 자신이 없었다. 나의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까?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함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새벽에 그 두려움을 안고 동네 작은 교회에 나갔고 그때가 고난주간이었다. 설교는 나의 마음을 때리고 있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렸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복음은 능력이 되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다.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나도 모르게 '나의 평생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리라' 다짐하였다. 그렇게 나는 회심을 했다.

벚꽃이 필 때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를 받던 그때가 떠오른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이었다. 결혼하고 둘째가 돌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이 떠올랐고 돌이 된 딸을 등에 업고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평신도로서 영혼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컸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3학년이 되던 해, 가정에 말도 안 되는 큰 아픔이 찾아왔고 남편도 나도 아이들

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아픔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이었다. 우리는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아침저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이 슬픔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토록 차가운 분이셨는가? 언제나 함께하셨던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멈추셨는가? 정녕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

그러던 중 시편 77편 말씀을 묵상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질문들을 시인이 똑같이 쏟아내고 있었다. 아! 시인도 환난 중에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으로 밤을 지새웠구나!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은 시편 77편을 통해 '내가 너를 버렸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었느냐? 내가 너를 잊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친히 위로해 주셨다. 말씀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불안과 어둠을 몰아내고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냉철한 마음으로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에게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세밀하게 기억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하심과 위대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떠올리게 되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아픔은 우리의 죄로 인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완전한 길이며 반드시 선을 이루리라는 확신이 고백되었다.

그리고 시인이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스물 여섯 살 되던 해 봄에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현재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 서게 하셨다.

회심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나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고난받기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음성임을 알았다.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은 위로이며 주의 임재인 것이다.

나는 점점 뜨거워지는 이 풀무불이 우리 가족을 태워 망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풀무불 한가운데 주님이 나와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풀무불에 육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에 지금의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때때로 보이는 현실 앞에 눈물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주님께서 친히 나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 ☆



## 6월 추천도서

### 가족: 가슴 시리도록 그림다

김남준/생명의말씀사

(본서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를 가장 애뜻해야 할 사이임에도 사랑할 수 없어 황량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고 그 뜻을 따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복과 화해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가정'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품어 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연상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떠올리기만 해도 상처와 아픔이 되는 곳, 차라리 잊고 싶은 이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정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에 따라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므로, 인간은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참인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단절감에 실망하고 심연 깊은 고독감에 좌절하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들'에게 다른 데서 얻기 힘든 위로와 희망을 주고 비로소 가식 없고 평안한 회귀의 장소로서 가정을 꿈꿔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생명의말씀사)

## 새가족섬김이가 되어 주세요



새가족위원회에서 새가족위원으로 열린교회를 새로 찾아오는 분들을 함께 섬기실 분을 기다립니다.

### ◆ 안내섬김

- 1부예배(7:25-8:05)
- 2부예배(9:20-10:05)
- 3부예배(11:20-12:05)

### ◆ 식당섬김

- 2부예배(11:15-12:05)
- 3부예배(12:15-1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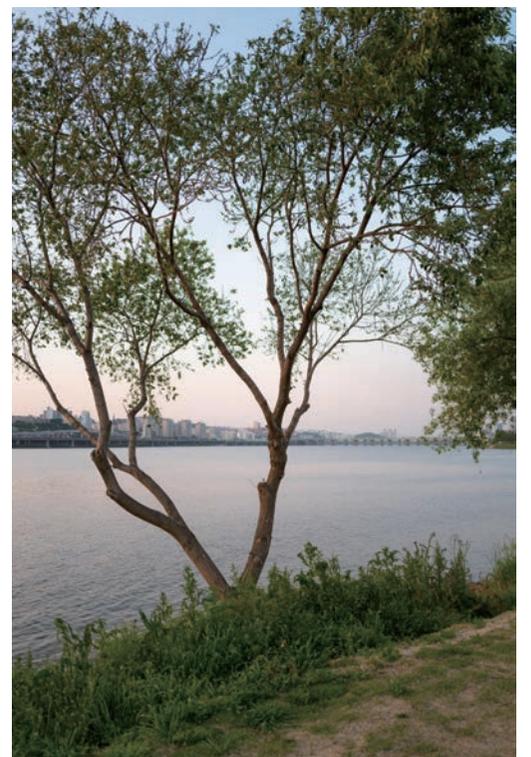
### ◆ 열린교회 홈페이지 하단

<섬김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신청

문의: 임동빈 집사/박숙현 전도사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세빛교실(영아부) 후기

# 우리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김은혜 장년6교구  
dfana7@gmail.com



아이가 보고 싶은 책을 가져와 함께 보는 중이었습니다. 다양한 감정에 따른 표정이 그려진 그림책이었는데, 책장을 넘기다 화가 잔뜩 난 표정의 그림을 보고는 손으로 가리키며 “엄마, 엄마”를 연거푸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지만, 종일 머릿속에 그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힘든 점 중 하나는,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바닥을 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임신 과정 동안 매일 밤 아기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부부의 모습은 어디 가고, 다정함과 성냄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줄타기하며 분주함 속에 일상을 살 아내가 바뻐했습니다. 이사계획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미루면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영아부에서 열리는 세빛교실 주제가 ‘인내’라는 것을 보고 주저 없이 신청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느 선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던 차였고, 아이와 부모가 분리되어 진행된다고 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오전, 교회로 향했습니다.

부모교실 첫 시간, 강사이신 김희종 박사님의 첫 질문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아이, 남편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은 외출 준비를 하며 빨리 가자고 아이에게 다그치는 모습,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 때문에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엄마, 아내가 되고 싶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 무게가 조금 버겁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를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간의 강의를 통해 성품교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갈등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생각, 감정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으로 훈계를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지혜를 주는 방법이며, 일관성 있고 단호하면서 감정적이지 않게 가르치고 함께 훈련하여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정성스레 준비하신 말씀과 다양한 활동, 가정과제를 통해 매일매일 온 가족이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합심하여 세빛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때는 태아부 예비맘 스쿨을 통해 출산의 염려 대신 육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돌 이후 영아부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아이가 예배하고 자람이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분리 예배를 하던 날, 찬양연주가 흘러나오는 예배당에 홀로 들어가던 발걸음의 감격이 생생합니다. 유아세례 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긴다는 고백을 하며 감사함에 흘리던 눈물도요. 그리고 이번 세빛교실을 통해서도 때에 맞는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유아세례식 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힘들기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아직도 매일 작은 것에 기뻐하고 화내며 고군분투하는 엄마지만,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양육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 안의 사랑의 연료가 비워질 때마다 든든한 울타리인 교회를 통해 다시 은혜를 부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우리 부부를 칭찬해 주셔서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빛교실(유아부) 후기

# 끝까지 기다려요!



원민주 장년1교구  
minjoowon27@gmail.com



2019년생 저희 아이는 유난히 낯선 환경에 적응이 느린 아이였습니다. 돌이 지나면서부터 영아부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한동안 영상예배를 드렸고, 다시 현장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거의 1년 내내 악을 쓰며 울면서 들어가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4세에 유아부로 올라가면서 역시나 낯가림에 울면서 들어갔지만 많은 도움의 손길로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고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세 신학기, 세빛교실 참여를 망설이다가 유아부 선생님의 권면에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낯가림 있는 아이의 유치원 적응 시기에 왕복 1시간 반 거리를 토요일, 주일 이틀 연속 교회에 나와야 하는 시간적 부담감으로 혹여나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온 가족이 3주간 시간을 들여 참여한 세빛교실은 저에게는 ‘아이에게 성경을 어떻게 접하게 하나’ 고민은 있으나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접근 방법을 알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예배에 참여하여 인내하는 다윗에 대해 배우고, 주중에 매일 실천 과제들을 하며 아이보다 엄마인 제가 더 인내함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

고 기다리는 것’임을, 이번 주제였던 이 구절을 3주 내내 온 가족이 함께 외우며 아이보다 제가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킹맘으로 퇴근 후 밥 먹고 재우기 바빴던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잠시나마 아이와 실천 과제를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던 아이가 점점 ‘인내’라는 단어의 뜻을 말하고 이야기 속의 다윗을 흉내 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쌓아간 후 주일예배로 연결되는 과정이 참 은혜였습니다.

세빛교실에서 만든 비파 악기로 연주하며 같이 찬양을 부르고,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다윗이 그려진 수면등을 만들고 그 불빛 아래서 다윗 역할 놀이도 하고 기도했던 그 매일의 실천 과제, (아이는 당연히 매 순간 집중하진 않았지만) 저와 아이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주 차엔 인형극이 무섭다고 뛰쳐나와 교회 무섭다고 안가겠다고 했고, 2주 차엔 아는 선생님이 없다고 울먹거리며 들어갔던 차라 제 마음 같지 않게 예배 전체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세빛교실 2주차에 유아부 심방을 받게 되었는데, 일 대 일이다 보니 아이가 예배실과 전도사님과 좀 더 친밀함을 느낀 듯했습니다.

곰곰이 생각

## 방문형 신앙, 임재형 신앙

글·그림: 나동훈  
gonggom2@designzip.co.kr

방문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방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드립니다.



임재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기대하고 맞아드립니다.



방문형으로 사는 분은 두 개의 세계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금 놀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임을 보여주실 때마다 놀랍니다.

임재형으로 사는 분은 하나의 세계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놀랍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3주 차에는 대표기도가 있었는데, 소심한 아이가 과연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처음엔 안한다고 완강히 저항하던 아이가 다행히 2주 차 끝나고는 혼자 할 수 있겠다고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간단한 기도문을 쓰고 밤마다 연습을 시도했지만, 아이의 산만함에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문을 잠깐 연습하고 큰 소리로 읽도록 다윗처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주었지만 불안했던 저는 예배에 방해가 되면 어쩌나 걱정만 앞섰습니다. 그런데 예배실에 저는 없었지만, 정말 큰소리로 또박또박 잘 따라서 기도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역시 이번 주제처럼 시간과 인내를 쌓으면 내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구나, 저의 부족한 믿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예배드릴 동안 남편과 함께 부모교실에서 함께 강의를 들으며, 인내라는 성품의 깊은 정의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또 훈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의 강의도 정말 좋았고,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키우며 신앙교육에 열정적인 다른 부모님들을 보며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 ☆

만남 품은 열린교인

#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눈물납니다

정재근 장년4교구  
renywater@naver.com



대학교에서 군 제대 후 복학생일 때 신입생이던 아내를 만나 7년 정도 사귀던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크리스천 이어서 아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갔지만 1년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 니다. 반면에 동아리 활동, 학교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을 적극적으로 좇는 생활이었습니다.

평촌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알아보던 중 집 근처 몇 군데 교회의 말씀을 들어 보았고 그중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 사님 말씀이 가장 좋아서 열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생활이 10년 정 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정신없이 분주한 삶이었기도 했지만, 그 당시 다녔던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연봉과 대우, 인정을 받으며 동기 중에서도 본부장 승진 1순위로 승승장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상에 거칠 것이나 두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할 것처럼 성공이 계속된 삶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중지부를 찍었 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에는 없을 것만 같았던 실적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닥친 이 상황 앞에서의 상실감, 부양해야 할 가족, 막막한 삶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인생이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플랫폼 대기업의 사업 확장 아이템 중에서 저의 성향과 잘 맞는 것이 있어서 두어 해 정도 전념하며 개 인사업을 일구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나라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그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직장을 잃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 는 상황에서 저는 이전 실직 때보다 더 큰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쫓다가 빼앗아 가는 게 어디 있나요?” 하며 하나님 을 원망했습니다. 하려는 일마다 잘 안되었고 남아있던 자존감마저 끝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한동안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별다른 기대 없이 집에 가는 길에 예배당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잔잔한 찬양 반주가 들리던 어두운 예배당에 들어가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꼭 참고 있다가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으며 엄마 품을 찾아 안겨 눈물을 터뜨리는 어린아 이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한계상황까지 참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창하지 못한, 아니 오히려 신음과 같은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 고 그렇게 방탕하고 하나님 멀리, 하나님 없이 살 때도 늘 기다려 주셨고 저의 생활과 생각,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 이 저를 사랑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비 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니, 담임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 습니다! 죄인 된 저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돈, 세상 지위, 세상 인정, 세상 걱정, 세상 근심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니 그것들에 전념하며 살았던 날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교구 목양팀을 같이 섬기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평소의 저 같으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 얼마 전의 기도로 마음의 질서가 재편되어 있었던 덕분에 그 제안을 수락 하고 목양팀에 소속돼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우며 누리게 된 말씀과 교제, 섬김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 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되었고 가슴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죄와 은혜의 지배> 설 교를 통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며, 매 순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은혜 안 에 거하기를 힘써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참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무작정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경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덕목들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종교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의 은 혜를 받을 때는 좋는데 삶의 자리에 오면 누렸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담임목사님 의 “습관이라는 그릇에 신앙을 담으라”라는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받아서 저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육의 양 식을 매시간에 맞춰 먹는 것처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 영의 양식인 말씀 묵상, 기도,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려고 노 려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흐르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악 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 죄송해서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생활 의 연속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항상 명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수민
- 전도사 광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정명원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최영광
-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해선 조일권

## 파송선교사

- A국: 4 units, B국: 1 unit, C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항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중국인예배 中國人禮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時 30分 (世光大廈 5層 中文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